

## 체육정책과 국민보건

여등찬/한국외국어대 교수

「새우리말 큰사전」에 의하면 체육이란 「육체의 건전한 발육을 꾀하는 교육, 운동 능력이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태도 같은 것을 바로 갖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다.

같은 사전은 「스포츠」를 「경쟁, 유희, 심한 육체활동이나 훈련의 요소를 포함하는 운동을 통털어 일컬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어떻게 보면 체육은 사람을 위한 교육으로 느껴지는 반면 「스포츠」는 경쟁, 유희, 훈련의 요소가 있어 구경거리를 제공하든지 사람을 훈련시켜서 이용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 글에서 「체육」과 「스포츠」의 문제를 학술적인 입장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체육」이란 어휘나 「운동」이란 말을 사용하기로 한다.

근대에 들어서부터 국민보건과 밀접한 문제라서 체육과 육체운동은 날이 갈수록 중요시되는 분야이며 나라마다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라에 따라 그 관심의 표현이 다르다. 필자로서 중요한 문제는 국민의 건강에 유익한 체육정책을 채택하는가 아니면 국가의 체면, 위상을 고려해서 소

위 국위선양에 보탬이 되면서도 극소수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여겨지는 정예주의적 체육정책을 선택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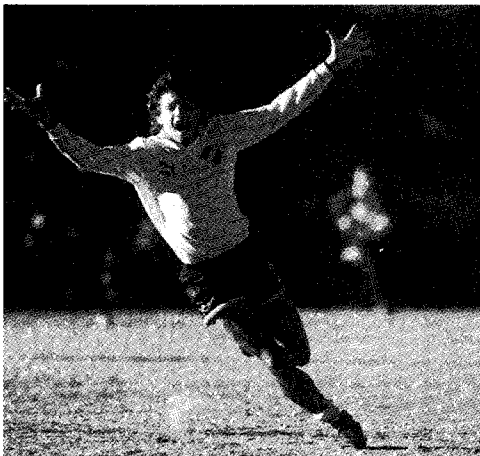
지난 수십년 동안 각종 세계선수권대회와 올림픽대회를 휩쓸어 놀라운 성과를 거두어 우리들에게 선망의 대상으로 보였던 소련을 비롯한 공산진영의 국가들은 과연 국민의 건강을 고려하면서 그들의 체육정책을 수립, 실시했는가? 수많은 국가대표선수들을 키워 「영웅」으로 만든 그나라들은 선수들의 훈련을 목표로 엄청난 예산을 책정하여 훌륭한 체육시설을 자랑했지만 그들 국민 대다수는 변변한 체육, 운동시설도 없이 그분야에 아무 혜택도 받지 못했던 것 같다. 체육과 운동은 국민을 위한 것이기전에 국가의 체면을 세울 만한 육체적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이용하는 방편이었다.

최근들어 각종 세계선수권대회나 올림픽대회에서 상대적으로 성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 선진국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체육과 운동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나라의 국민들은 오히려 우리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스포츠」를 많이 하고 즐기는 사람들이다. 그런 나라

에 찾아가 살펴보면 지방의 소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도 하급공무원, 근로자, 농민들이 마음대로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을 발견한다. 저녁때 일과를 끝내고서나 주말에 그런 시설을 즐겨찾는 사람들 또한 대단히 많다. 그들은 선수의 꿈도 없고 몸을 혹사시켜가면서 기록에 도전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구경거리를 제공할 생각도 없다. 그들은 단지 그 시설을 이용하여 일터에서 피로해진 몸을 가볍게 풀고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20세기에 들면서부터 기술문명의 발달과 산업사회의 등장과 함께 「스포츠」 즉 육체운동은 없어서 안될 사회현상으로

선진국 국민들은 오히려  
우리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스포츠」를 많이 하고  
즐기는 사람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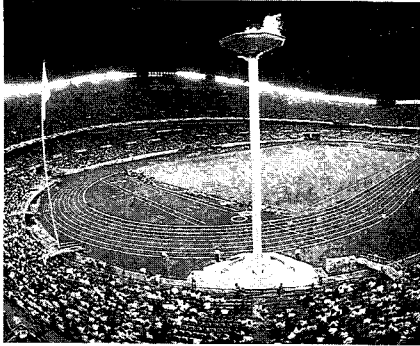


대두하기 시작했다. 옛적부터 구경거리로만 여겨졌던 운동은 차츰 특수계층이나 「프로」들의 한정된 범위를 벗어나 일반대중에게 보급되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근로자들의 여가생활이 산업사회의 필연적 결과로 나타나면서부터 「스포츠」의 인구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했다.

주거의 환경, 도시화현상, 복잡해진 교통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피로 등은 또한 육체적 운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된 인간은 격한 운동보다 가볍고 자유로우며 부담없는 육체운동을 통하여 쌓이는 피로를 풀고 원기를 회복할 필요를 느낀 것이다. 운동은 이미 돈을 벌면서 타인을 즐겁게 해주는 「유희용」 구경거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육체적이고 정신적 긴장을 해소하기에 적합한 활동으로 간주된 것이다.

서구제국의 경우 일찍 국민보건에 대한 「스포츠」의 유익함과 중요성을 깨달은 정부들이 할애한 엄청난 예산은 국민체육의 육성과 진흥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독일, 불란서 등 서구선진국에서는 수많은 운동장, 수영장, 체육관 등등을 건설하면서 운동클럽들을 위해 또한 대규모의 재정지원을 해왔다. 따라서 옛날에 경제적인 부담이 많은 것으로 간주되었던 스키, 수상스키, 승마, 펜싱, 골프 등 여러가지 「고급스포츠」도 일반국민에게까지 보급된 것이다. 불란서만 하더라도 동계휴가를 얻어 알프스산 등을 찾아가 동계스포츠를 즐기는 인구는 엄청나게 증가했다.

국민보건이라면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생각해선 안된다. 국민의 정신도 그만큼 보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바로 그



한국의 체육정책이 국민건강을 고려하기보다 전시효과를 노리는 목적으로 실시되지 않는가 싶다.

런 면에서 체육과 운동은 유익한 훈련이 되는 것이다.

육체적 건강에 이바지하면서 운동은 한 자리에 모여 힘을 겨루는 여러계층과 직종에 속한 사람들의 접촉의 기회를 마련, 국민의 일체감, 공동체 의식, 단결심, 협동정신을 고취시켜줌으로써 한나라의 정신건강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견지에서 체육이 현대산업사회에서 나타나기 쉬운 개인주의, 이기심과 편파심 등을 극복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방마다 농촌까지 보급되는 체육, 운동시설과 벽촌까지 혜택을 주는 체육정책은 어느정도 이농현상을 막아줌으로 지역간의 균형발전정책에도 보탬이 되는 것이다. 농촌의 젊은 이들은 설사 농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현지공장에서 일하면서 문화적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도시로 떠날 생각을 하지 않

는다.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

얼마전에 「알베르빌」에서 개최된 동계 올림픽대회에서 우리는 10위를 차지해서 대단히 기뻐하고 흥분했다. 특히 국위선양의 측면에서 일본을 제치고 아세아의 일위를 점한 것은 영광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나는 그런 성과를 과소평가할 생각은 없지만 이를 과대평가하는 경향도 좋지 않다고 본다.

자칫하면 우리는 다른 분야에서 일본에 밀리는 것을 만회하고 값싼 위안을 찾기 위해 국민전체에 돌아가야 할 체육진흥비를 몇 안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정치권의 선전을 위해 사용할지도 모른다.

지금 한국의 체육시설이 대도시에만 집중되어 있는 현상으로 미루어보아 우리의 체육정책이 국민건강을 고려하기보다 전시효과를 노리는 목적으로 실시되지 않는가 싶다. 지방, 군소재지 이하의 국민들에게 체육이나 문화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아쉽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기업체의 간부, 고급인사들이 이용하는 200여개의 골프장에 비해서 서민을 위한 체육시설에는 너무나 인색한 느낌이다. 따라서 국민의 육체적 건강이나 정신적 건강을 바라기 어렵지 않은가 싶기도 한다.

기업체들은 기업의 선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축구단이니 야구단이니 배구단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일지 모르나 그런 선전보다 일반사와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운동과 그들에게 필요한 위락시설에 보다 많은 투자를 했으면 하는 것이다. 卍